

표심 잡으러 맛집 간다…선거운동도 ‘콘텐츠 시대’

광주·전남 입지자들 면방부터 선거구 맛집 소개까지 일상 소개
직접적인 정책 설명·지지 호소보다 콘텐츠로 인지도 상승 전략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주·전남 입지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톡톡튀는 이색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불닭볶음면 면방부터 선거구 맛집 소개, 가족 동반 유튜브 출연, 솟츠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정다운 광주시의원(북구청장 출마 예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역구의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동네 우리가게’라는 제목으로 두암동 동화 소주방, 두암동 팥죽나라, 용봉동 표주박, 일곡동 만두도시 등 7개 시리즈를 내놨다. ‘정다운 시그니처 메뉴’를 함께 소개해 콘텐츠에 성격을 더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드나들던 단골식당이라는 사연부터 홍보가 돼서 손님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업소 대표들의 인삿말을 남기고 있다.

정 의원은 “동네 사장님들이 매출 고민을 토로할 때마다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우연히 업로드한 동네 빵집 계시물을 보고 직접 빵집 찾아온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손님 한 명이리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고 싶다. 조만간 식당이 아닌 다른 동네 가게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하상용 전 광주창조 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유튜브 채널 ‘하상용 TV’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솟츠를 선보이고 있다.

일부 영상은 정치인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19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만4000여명에 달한다.

그는 아들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영상에 담아 친근하고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유통업

체 빅마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서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사립’, ‘회사 고민 중이라면’, ‘회사 회식 끌립’ 등의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 후보는 “평소 아이들과 자주 나누던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공유해 보자는 제안에 아들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시작됐다”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회생활 조언도 전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취재해 주민 의견을 담은 영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MZ 쇄에 식품 불닭볶음면 먹방을 올려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불닭볶음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종류별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는 권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매운 음식을 먹고 혀니 빠진 털털한 모습이 담겼다.

나주시장 출마 예정인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부 기획비서관은 유튜브를 통해 나주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짧게 편집된 영상에는 새벽부터 나주의 주요 휴식공간과 공원을 산책하고, 시민들과 나눈 대화,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담았다.

최근에는 현수막 중심이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시외버스와 택배차 외부 광고까지 활용하는 등 선전 수단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이동 수단을 매개로 한 노출 확대로 일상 속 접점을 넓혀려는 시도다.

주은신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과거 정치 홍보는 오프라인에서 정책 설명이나 정제되고 통제된 메시지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이



6·3 지방선거에서 출마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남구청장 출마 예정인 김용집(인쪽 위부터 시계방향) 전 광주시의회 의장, 황경아 현 남구의원,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북구청장 출마 예정인 정다운 현 광주시의원.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충분한 관심을 끌기 어렵다 보니, 면방, 일상, 맛집 소개 등 콘텐츠의 다

양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설득 메시지보다 먼저 소구력 있는 콘텐츠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보인

다”며 “이를 통해 인간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나 피로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가점제 등 폐지 권고…지방균형발전 저해 우려

빛가람혁신도시, 5명 이하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적용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가점제·할당제 폐지 및 권역 통합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 인재풀을 넓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지만, 이같은 개선방안이 지역인재 채용을 줄이는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실태’에 따르면 일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를 도입하면서 예외규정 고대로 인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의 실효성 저하, 가점제·할당제 중복 운용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임의적으로 1년이 아닌 매회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삼아 2018~2024년까지 총 136회의 채용시험 중 98회(72%)에 대해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진단이 발표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과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의무채용비율은 2023년 기준 40.7%였지만,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17.7%로 23%p 낮고 기준치에도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가점제·할당제의 중복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일반 합격자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하지만 서류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가점제 또는 채용정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 뿐으로 두는 할당제를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중복 운용하게 되면서 일반 합격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부작용에 대해 ‘규정 미비’라는 진단을 내놨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8~2024년까지 22~30% 수준으로 지속 상승해왔다. 또 기관별로 모집 인원이 미정이나 주기재용으로 예외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가점제와 할당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 관련 규정에 운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시유를 들어 중복운용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사유 적용 대상 축소’, ‘가점제·할당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시, 전통시장매니저 지원…경쟁력 키운다

12개소 내외 선정해 인건비 지원…상인회 자부담 10%로 낮춰

광주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올해는 상인회의 인건비 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대폭 낮춰 영세 상인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광주시는 ‘2026년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종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점가 등 12개소 안팎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곳에는 행정·회계 업무와 공모사업 기획, 안전관리를 전담할 시장매니저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억 6277만원이다. 광주시는 올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건의를 수용

해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40%, 상인회 자부담이 20%였으나, 올해는 시비와 구비를 각각 45%로 늘리고 자부담을 10%로 줄였다.

시장매니저의 월급여는 2026년 중기부 기준을 준용해 231만원(4대 보험료 등 포함) 시 상인회 부담 별도)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상인회에 상주하며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기획 및 관리, 화재공제 가입 독려 및 안전점검, 온누리상품권 홍보, 상인 고충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매니저 지원을 통해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상인의 부담을 줄인 만큼 많은 시장과 상점가가 혜택을 누려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